2022년 4월 13일 새 하늘과 새 땅

I. 들어가는 이야기

성경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며 지혜의 길잡이가 되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신학자나 사상가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과 지혜를 길어 올려야 한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 후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인데 굳이 우리가 생태계 파괴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런가?

참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

- 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는 미래중심적 책이 아닌 현재중심적 책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를 통해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가 종식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이다.
- 우상 숭배와 맘몬의 숭배에 대한 저항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많은 이단 사이비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시대와 상황을 외면하고 문자적으로 읽으며 왜곡시키고 있다.
- 문자 근본주의자들은 계시록에서 세계의 종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의 시간표를 찾고, 지금이 종착역에 도착한 때라고 주장한다.
- 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 아래서 고난 받는 약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의에 저항하도록 돕는 책이다. (참고 이병학, 요한계시록: 약자를 위한 예배와 저항의 책)

II. 요한계시록 21:1-5 새 하늘과 새 땅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1)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1.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바벨론(로마제국)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질서가 끝나고, 모든 피조물의 치유와 완성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2.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불가시적 초월성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역사의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을 상징하는 땅으로 내려온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로 표현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행동을 했던 순교자들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산 자들이 재회하고 결합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룬다.

3. 사람들과 함께 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계 21:22). 새 예루살렘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이다.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는 사라졌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에 가득하다(계 21:11).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창조, 구원의 완성이다.

4.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새 예루살렘 현실은 로마제국의 현실과 정반대다. 하나님의 통치는 제국의 통치와 반대다. 처음 땅에서 겪어야 했던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변하여 기쁨으로 전환 될 날이 이른다.

5.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구원은 기존 세계의 재건이 아닌 새로운 창조이다. 불순종과 죄가 제거된 새 창조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듯이, 만물 또한 완전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성경의 창조이야기는 역동적이다. 태초의 창조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 창조를 지향하고, 계속적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 힘차게 질주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단지 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늘 새롭게 빚어간다 (참고 시 104:30, 사 43:19, 고후 5:17).

III.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폐기처분 할 것인가? 아니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할 것인가? 이 질문은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관련이 있다.

성경은 구원을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땅을 구원하셔서 백성과 땅이 번영을 회복하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사 65:17, 66:22, 벧후 3:13, 계 21:1)은 첫 하늘과 땅의 새로운 갱신을 의미한다.

- 마 19:28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 행 3:21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이 밖에도 피조물의 구원(롬 8:19-22), 만물의 그리스도와 화해(골 1:20),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엡 1:10) 등은 하늘과 땅의 질적인 변화에 대한 구절이다. 다만 성경에는 세상을 폐기(마 24:35, 벧후 3:7, 10-13, 계 20:11 등)하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도 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폐기하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cosmos)을 그지없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조물의 치유로서 구원을 완성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다. 궁극적으로 맞이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거하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롬 14:17)이다.

IV. 결단 및 헌신

기후위기 시대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시대에 주어진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은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질문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한다. 지난 6주간의 사순절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읽기 특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 창세기 9장: 하나님-사람-모든 생물이 맺는 영원한 삼자적 언약
- 이사야 11장: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메시아 시대의 꿈 (공의와 정의, 피조물의 평화)
- 시편 148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체
- 마태 13장: 예수님의 눈에 비친 피조물은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가득함
- 골로새서 1장: 만물의, 창조의, 유지의, 화해와 평화의 그리스도
- 계시록 21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첫째, 우리들은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기후위기 문제와 부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신화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 이 두 문제의 진짜 뿌리는 우리 안의 탐욕, 어리석음, 교만이기 때문이다.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들리지 않는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희생 없이 아픈 지구와 가난한 이들을 구원할 길은 없다.

둘째, 성경에는 피조세계와 지구의 돌봄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다. 그 구절들은 하나님과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무지개언약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완성까지 하나님-사람-만물의 삼자적 관계는 계속된다.

셋째, 만물은 인간을 위한 대상이나 객체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 부름 받았다. 완전한 치유로서 구원에 만물은 포함된다.

넷째, 만물 안에서 사람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보호하며 돌보듯이,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돌보며, 피조세계 안에서 일부를 구성하며,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며 경작하는 일(창 2:15)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